



트리플 카메라
시대의 리드 오프
Galaxy A7
SM-A750M
SAMSUNG

더연합타임즈

www.theuniontimes.co.kr

BNK 금융그룹

지역과 함께 세계로, 고객과 함께 미래로!

www.bnkg.com

제 18 호 | 2020년 5월 18일 월요일 | 전화 : 1899-2026

회장 : 송원기 / 발행·편집인 : 추교진 / 청소년담당 : 박행주 / 인쇄인 : 현재오

여야 “5·18 숭고한 정신 계승”…통합당도 한 목소리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인 18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인근 5·18 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이 끝나자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편지 낭독을 마친 유족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

통합당 “5·18 부적절한 언행 진심으로 사과” 법여권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여야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18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5·18 정신을 적극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자당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평화 발언을 사과하고 유가족에도 위로를 전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고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목숨을 바친 광주시민들의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기린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곡된 역사와 은폐된 진실은 규명

되지 않고 있다”며 “역사를 바로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첫 단추는 5·18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역사의 가해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가 진실의 토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5월 정신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은 자당 인사들의 망언과 관련해 사과하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했다. 또 5월 정신을 되새기겠다고도

다짐했다.

황규한 통합당 부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통합당 일부 인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유가족과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더한 것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통합당이 먼저 발 벗고 나서겠다”며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광주 방문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40년 전 오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위대한 광주시민들이 계셨다”며 “숭고한 5월 정신을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받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은 국민통합을 위한 씨앗이 돼야 한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조수진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의 의로운 희생을 발화점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모두가 무명 용사가 되어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다”라며 “이제 광주의 5월은 우리 모두의 5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당과 정의당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도자 민생당 수석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민주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거룩한 민주주의 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긴다”고 밝혔다.

이어 “40년이 지났지만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발언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5월의 광주는 우리 민주주의의 아픈 역사이다. 위대한 역사”라고 강조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40주년을 맞이한 오늘까지도 여전히 발표 명령자가 누구였는지조차 밝혀내지 못하며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참으로 통탄스럽다”며 “5·18에 대해 이미 규명된 역사적 사실조차 왜곡하고 폄훼하고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할 망언과 망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여권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을 사과한 데 대해 평가하면서 행동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늦었지만 시대착오적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사과가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진정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사과가 진정성을 담으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원기 기자 mbc0300@gmail.com

코로나19 함께 이겨낼수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옛 전남도청에 울려퍼진 5월의 노래…

“살다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 어머니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5·18 40주년 현정곡 ‘내 정은 청산이오’ 최초공개

‘편지’, ‘임을 위한 행진곡’ 등 울려퍼져

“노래를 부르는데 살다보니 또 이런 날도 오는가 싶어서 눈물이 나네…”

5·18민주화운동 제 40주년 기념식이 열린 18일 오전 시민군의 ‘최후항쟁자’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는 유족들의 마음을 흔드는 노래들이 울려퍼졌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 내외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오월 어머니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관현 열사의 누나 박행순씨는 “내가 여기만 오면 가슴이 벌렁거려서 오랫동안 이곳을 지나다니지 못했다.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분수대가 ‘팍’하고 터지는데 가슴이 트이는 기분이 들어 허기분했다”고 말했다.

행순씨는 “어제는 5·18민주묘지를 찾았다가 관현이한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니 5·18 진상규명 해달라고 마음을

전해주라고 말하고 왔다. 문 대통령께 관현이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얀 소복을 입은 한 오월 어머니는 “마음이 허기분하고 좋다. 노래를 부르는데 살다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어 눈물이 났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18언안을 한 자유한국당 때문에 많이 울었는데 이렇게 조용한 기념식이 얼마나 인상적이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식이 시작된 지 20여 분이 지났을 때 임은택씨의 아내 최정희씨(73)가 남편에게 아픔과 그리움이 섞인 편지를 읽어내려가자 조용했던 객석 곳곳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여보! 우리 다시 만나는 날, 나 너무 늙었다고 모른다 하지 말고 삼남매 번듯하게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고 칭찬이나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 참 잘했다고.”

보고 싶은 당신! 우리 만나는 날까지 부디 편히 쉬어요.”

최씨의 사무친 사부곡에 오월 어머니들은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냈고 유족을 비롯한 관객들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최씨의 한 맷한 편지 낭독 후에는 가수 김필이 ‘편지’를 열창했다. 김필은 겸

은색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라 담담하게 이야기를 건네듯 노래를 불렀다.

‘여기까지가 끝인가보오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얹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소.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 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하오 그대 부디 잘지내시오…’

노래가 절정으로 향하자 객석 여기저기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문 대통령도 사색에 잠긴 표정으로 입을 꾹 닫은 채 김필의 노래를 감상했다.

이후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장재일 작곡가와 장민승 영화감독이 제작한 ‘내 정은 청산이오’가 최초 공개됐다.

5·18희생자와 광주를 위해 헌정된 이곡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티브로 남도음악과 전통문화, 오페스트라, 랩, 중창 등 다양한 장르를 활용해 제작됐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객석의 오월 가족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제창하며 식이 마무리됐다.

박행주 기자 ph1654911@naver.com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 제2묘역에서 고(故) 이연 씨 묘를 참배한 뒤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약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가 가능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모든 가족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해외가족 배송은 최대 36장

18일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모든 가족의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도 국내 구매 기준인 ‘1주에 1인 3장’ 기준을 적용해 3개월분인 36장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마

스크 대리구매 대상을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 등 노약자로 한정했지만, 국민의 마

스크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

날부터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했다.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

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

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

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대리

구매하면 된다.

예컨대 자녀는 월요일과 화요일,

부모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마스크

구매 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

요일을 제외한曜일에 약국 등을 방

문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마스크의 분할 구매도 가능해진

다.

그동안은 1주일에 1회에 한해 3

개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다. 즉,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를 사도 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마

스크를 보낼 때도 일주일에 1인당 3장

을 구매할 수 있는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준에는 ‘1주에 1인 2장’ 기준에 따라 한 달에 최대 8장만 보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한 달에 12장을 보낼 수 있다. 3개월분을 묶음 배송할 수 있어 한꺼번에 최대 36장까지 보낼 수 있다.

이날 전국에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05만7천장이다.

전국 약국에 738만5천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8만9천장,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6만장, 의료기관 152만3천장 등이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의 마스크를 살 수 있고, 대리 구매 시 출생연도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갖춰 가면 된다. 마스크는 일주일에 1인당 3장까지 살 수 있다.

윤민경 기자 dbstpd6536@naver.com

다함께!
다같이 [가치]
대한민국의 가치를 같이 높이는
한전KPS의 기분 좋은,
상생프로그램입니다.
패러데이 스쿨 편

국가 산업기술의 뿌리
차세대 기술명장
1,000명 육성

www.kps.co.kr

한전KPS가 하는 일
•발전플랜트 설비 진단 및 성능개선 •국내발전설비 정비 •해외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신재생설비 정비

Perfect & Pride
대한민국의 별을
키우겠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야”

전국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KPS 패러데이 스쿨’ 차세대 기술명장 1,000명 육성

(패러데이 스쿨 : 한전KPS의 사내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현장 기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산업기술인력 1,000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 상생 프로그램)

한전KPS주식회사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처 논란 인자…가맹점 확대 논의중”

재난지원금 효과 파악 위해 사용액·업종 분석 추진
“의도와 달리 실수 생겨…‘실수 기부’ 철회토록 개선”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소비 진작 효과를 늘리기 위해 사용 가맹점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사용이 완료되는 8월 말 이후 사용금액·업종에 대한 분석도 추진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테스크포스(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용처 간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중”이라며 “처음하는 일이다보니 저희(정부) 의도와는 달리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개별 가맹점을 넣고 빼고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다만) 어느 업종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유사 사례가 상당히 많아 사안별로 판단해야 되고 국민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정과 배치되는지에 대해 봐야 한다. 실질적 지급 주체인 시·군·구의 입장도 들



윤종인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쟁점사항 설명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어봐야 하고 카드별로 시스템도 조금씩 달라 넣고 빼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둘러

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외국기업 매장은 쓸 수 있는데 국내기업 매장에선 사용이 불가한 게 대표적이다.

롯데하이마트에서 국산 전자제품 사는 건 안 되는데, 애플 매장에서 수입 품을 사는 건 된다. 중소기업들도 납품하는 대형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는 건 ‘대기업 점포’라서 안 되는데, 골프 전문점에서 골프채를 사고 강남 고급식당에서 코스 메뉴를 먹는 건 가능하다. 글로벌 가구 브랜드 이케아도 대형마트 규제에서 빠져 급기야 가구협회가 “이케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긴급 성명까지 냈다. 정부는 추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금액과 업종을 분석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윤 차관은 “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을 정확하게 지급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면서 “아직은 사용액·업종 통계는 없지만 지금 후다 쓰고 난 후에 한번은 당연히 봐야될 부분이다. 우리 지역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평가와도 관련 있기에 분석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실수 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며, 기부 현황은 추후 법상 기부금의 모집 주체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윤 차관은 “본인이 (기부) 실수한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바꾸고 있다”며 “정확 기부액은 현재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지만 고용부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민경 기자 dbspdk6536@naver.com

국방부 “오늘부터 입영장병 코로나19 감염여부 전수검사”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올해 첫 징병검사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가 18일부터 입영하는 장병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군 내 코로나19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무증상을 보이는 20대 청년층의 잠재적 감염 가능성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오늘부터 8주 동안 입영 장병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군은 군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굉장히 선제적으로 여려 가지 강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입영 장병 전수검사는 8주간 이뤄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갓갓’ 문형욱 “피해자에 죄송, 조주빈과는 관련 없어”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일명 ‘갓갓’ 문형욱(24)이 18일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채 검찰에 송치됐다.

문형욱은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조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문형욱은 이날 오후 2시께 경북 안동경찰서 나서면서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고개를 끕고 속인 채 “피해자들에게 한마디한다면?”이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고 죄송스럽습니다”고 말했으나, 그는 미성년자 여성들에게 범

행을 했나?”, “경찰에는 어떻게 출두 했나?”, “피해자 50명이 맞나?”, “상품권 90만원이 전부인가?” 등 이어진 질문들에는 “죄송하다. 경찰에게 연락이 와 조사를 받게 됐다. 성폭행 지시는 3건이다. 피해자는 50명이라고 경찰에게 말했다. 90만원이 전부다”고 답했다.

또 “조주빈과 어떤 사이인가?”, “현재 심경은?”이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주빈과는 아무 사이 아니다. 잘못된 성관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여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임경복 기자 axoway1212@naver.com

잘하고 싶다 자라고 싶다

두 가지 모두를 꿈꾼다면
한화생명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싶다면
누구보다 당당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면
당신의 시작은 달라야 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지원이 함께 하는
한화생명에서 남다른 시작을 여십시오



한화생명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



체계적인 성장지원

시스템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신인FP가 전문가로 거듭나기까지, 한화생명의 지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강력한 활동지원 시스템

가장 고객 발굴부터 계약 후 관리까지- 다양한 시장확보 지원과 모바일 활동지원으로 고객을 만나는 일이 더 즐거워집니다!



탄탄한 보상체계

활동 초기 든든한 정착지원은 기본!

더 큰 성과에는 그에 맞는 실질적 대우를 약속합니다!

한화생명 FP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hanwhalife.com

본 광고는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직원채용과는 무관합니다

이철우 도지사, 연이은 농정현장 발빠른 행보 보여

화훼, 과수농가 이틀 연속 방문… 현장 소리 경청, 일손돕기 격려
광역학교급식센터도 찾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공급 격려



이철우 도지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정현장을 연이어 찾으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소통의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를 방문해 농장주를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지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사무실 등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 속 꽃 소비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튿날인 14일에는 과수농가와 광역학교급식센터를 찾았다. 먼저, 이날 오전에는 의성군 옥산면 소재 과수농가에 들러 경북지역에 일손지원을 나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사과적과 작업도 함께 하였다.

이에 이 지사는 우리도에서는 일

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사과적과 작업도 함께하며 작으나마 일손을 보탰다.

또, 밭두렁에서 도시락 점심을 함께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분야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이 심각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우리도에서는 일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일손돕기 품앗이 운동을 추진한다고 소개하며, 지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는, 군위군 효령면에 위치한 경북광역학교급식센터를 찾았는데, 이곳에서는 새롭게 운영되는 '파스타 코로나'로 대비하여 경북 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어려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

아 초·중·고 개학연기로 판로가 막혔던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큰 힘을 되어준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센터는 지난 3월 학교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친환경농산물 급식농가를 돋기 위한 "경북농특산물 품앗이 완판운동"에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과 공급을 담당했으며, 5월중 경북도내 초·중·고생 26만여명의 가정에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도 맡는 등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농정분야에 보내준 이 지사의 지원은 무조건적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피해농산물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어려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연장과 무이자지원, 화훼소비 촉진행사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판매촉진행사에 이르기까지 매번 현장에서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 지사의 농정현장 행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식량안보라는 새로운 위기요인을 목격했고, 이에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만큼 일손부족 해결에 두 팔을 걷어 부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경북 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어려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 면

서 "이를 위해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정현장을 연이어 찾으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소통의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를 방문해 농장주를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지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사무실 등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 속 꽃 소비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튿날인 14일에는 과수농가와 광역학교급식센터를 찾았다. 먼저, 이날 오전에는 의성군 옥산면 소재 과수농가에 들러 경북지역에 일손지원을 나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사과적과 작업도 함께 하였다.

또, 밭두렁에서 도시락 점심을 함께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분야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이 심각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우리도에서는 일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일손돕기 품앗이 운동을 추진한다고 소개하며, 지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는, 군위군 효령면에 위치한 경북광역학교급식센터를 찾았는데, 이곳에서는 새롭게 운영되는 '파스타 코로나'로 대비하여 경북 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어려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

경북도 정승조 기자

마세먼지 저감도내 우수기관 선정

경기 용인시는 최근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0년 미세먼지 저감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1개 시군을 인구수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눠 6개 분야 27개 세부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용인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 10곳 대상의 A그룹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관련 심포지엄을 열어 경각심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하고 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림서비스를 확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지난해 전체 노후경유차의 절반에 달하는 1만여 대에 저감장치 설치와 조기 폐차를 지원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인유기영 기자

센터는 금주 16일 문화의 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파마스 마켓'을 개최해 격주로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며, 광부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홈쇼핑 형태의 상가 홍보와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경장성우 기자

윤화섭 시장, 코로나19 아이디어 효과 '톡톡'

선도적으로 도입한 예방책·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의 아이디어로 전국 최초 도입된 안산시 방역정책들이 확산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7일 안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시는 올 1월29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사태 대응에 나섰다. 지난 2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3월7일 안산시에서도 최초 확진자가 발생, 현재까지 모두 16명의 환자가 나왔다.

이경원 외동읍장은 "살기 좋은 외동읍 만들기에 힘써 주신 외동읍 상생복지단 강기순 위원장님과 위원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외동읍 상생복지단이 되기를 소망한다" 답했다.

우선 시는 지난 3월10일부터 모

든 자가격리자에 대해 시 예산을 투입해 해제 전 진단검사를 실시해 지역사회 추가 감염을 차단했다. 특히 안산 14·15번째 환자는 무증상 상태에서 이뤄진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톡톡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해제 전 검사는 현재 전국으로 확대돼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시는 또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던 지난 3월부터 영상 통화를 걸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으며, 자체적으로 스마트 폰 45대를 마련해 자가격리자에게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에게 안산시 농특산물을 구호물품으로 지급하는 등 배려를 잊지 않고 있는데, 한 일 본인 여성의 자가격리 생활을 개인 SNS에 공유하며 시 직원들의 배려와 보살핌에 감사하다고 글을 게재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안산길대성 기자

경주, 제21대 총선 낙선자 공약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

주낙영 시장, 총선 직후 대시민담화문 발표에 시민화합을 위한 의지 밝혀

경주시는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해 지난 제21대 총선 공약 중 당선자 뿐 아니라 낙선한 후보들의 공약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주낙영 시장은 총선 직후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선거과정에서 빛어진 분열과 갈등을 치유해 자랑스러운 경주를 다 같이 만들어야 한다"며, "당선자의 공약뿐 아니라 낙선자들의 좋은 정책들도 시민화합 차원에서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시민화합의 뜻을 바탕으로 경주시는 낙선자들의 시정관련 공약 37건에 대해 시정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주시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은 17건이며, 현재 기존시설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경주의료원 설립 등 3건을 제외한 17개 사업을 장·단기로 나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그 중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농산물 생산원장에 보장제 도입, 고령자 거주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감염병 대처를 위한 음압병상 증설, 각종 축제 및 페스티벌 지원, 지역화폐(경주 Pay)를 이용한 문화체험 활동 지원 등 정종복 후보가 공약한 5개 사업은 단기 반영해 추진하고, 권영국 후보의 국공립 어린이

집 21시까지 야간돌봄 추진, 농어민 기본소득제 및 보조금 통합시스템 도입,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건립 등 3개 사업과 정종복 후보의 직업체험관 유치, 농어인연연금제 도입, 신라왕궁 재현단지 건설, 경주·포항·울산 공동 관광바우처 제도 도입, 어린이들을 위한 지역별 특화 놀이터 조성, 동남권 관광 데이터 센터 건립, 보문단지 관광특구 지정(면세점 유치), 반려동물 산업 육성센터 및 펫파크 설립, 영남지역 기후변화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중앙정부의 정책변화가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주시에서 기 추진 중인 안전한 먹거리 공급, 도심재생을 통한 도시경제 활성화,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청년일자리 정책추진, 도심을 거쳐 가는 관광코스 다양화, 대릉원 담장을 허물고 유적지와 도심상가 연계, 소형 모듈 원전 생산 산업단지 조성, 공공 배달앱 지원,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화훼 생산농가 육성, 농업의 6차 산업화 등 17건의 공약은 후보자들의 뜻을 반영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주낙영 시장은 "지역발전을 이루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당선자의 공약을 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낙선자의 공약 가운데도 좋은 정책이 많은 만큼 적극 수용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전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문경시 체육회 덕분에 챌린지 동참

코로나19 예방에 힘쓰는 의료진·현신에 감사 존경합니다' 수어동작으로 감사 마음 전해



경북 문경시 체육회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신하는 의료진에게 감사 표하고 응원의 힘을 보내기 위해 문경예총에 이어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순하 문경시 체육회장 등 직원 15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희생과 노고에 '존경합니다'라는 수어동작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노순하 문경시 체육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감사 드리며, 방역체제는 생활 방역체제로 완화되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켜 청정문경을 지키는데 문경시 체육회와 체육인들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음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대상자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상열 이사장, 문경관광개발(주) 박희일 대표이사, (주)문경레저타운 김진수 대표이사를 지명했다.

문경/장성우 기자

여수, 율촌산단 연간 3만 톤 규모 양극재 공장 준공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광양공장 2단계 준공

2020. 5. 14 (목)



율촌산단 미래 친환경 핵심사업 도약 300여 명 친환경 고용 창출효과,

전남 여수시는 포스코케미칼(대표 민경준)이 율촌산단에 연간 3만 톤 규모의 양극재 제조 공장을 준공한다고 17일 밝혔다.

14일 포스코케미칼 광양공장에서 열린 이날 준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서은수 여수부시장, 김명원 광양부시장,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의 기념사,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축사에 이어 준공 세리머니, 공장투어 및 기념식수 등을 진행했다.

이차전지란 충전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 전기차나 휴대전화 배터리, 노트북 등에 널리 쓰이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여수/김상면 기자

경주시 외동읍, 사랑의 집수리 사업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방문
상생복지단, 복지사각지대 해소 힘써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사업지구 내 접촌역전상점가, 문화의 거리 행복지점가(이하 상점가) 두 곳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의 부처 연계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경시 일자리경제과와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을 했다.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은 전통 시장 및 상점가 대상 협력 회복을 위해 상권별 특성에 적합한 공동마케팅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선정된 상점가에서는 접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센터에서 진행 예정인 문화의 거리 축제인 '파마스

마켓'과 연계해 고객 유도를 위한 고객감사 응모권 이벤트, 가을맞이 이벤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경시는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외에도 다른 부처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문경장성우 기자

열린민주와 합당 '180석' 만들자…통합론 활발

"시기 특정 어렵지만 합당 급하게 할 문제는 아냐"

이해찬 "177석이라고 180석 효과 못 누리는 게 아냐"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으로 177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하면 180석 정당이 되는데 퍼스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도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다.

민주당 지도부는 열린당과 합당 논의에 일단 선을 끄고 있지만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마무리한 현재의 지도부가 8월 전당대회 이후 교체되면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5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 "같은 계열의 정당들이 여러 개 나뉘어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해찬 대표께서는 선거 과정에서 열린민주당과는 합당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말을 바꾸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8월 전당대회가 열려 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면 그때 검토해야 할 일이다. 이념과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도 자연

스럽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의 공천 겸종 과정에서 탈락한 정봉주 전 의원을 주축으로 창당된 터라 총선을 이끌었던 현 지도부가 합당을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지도부가 교체되면 일마든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도 지난 13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열린민주당은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라며 "선거 때 앙금을 씻고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우리가 180석이 아니고 177석(민주당+더시민)이라고 강조하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177석이라고 해서 180석을 갖고 있는 효과를 못 누리는 게 아니다"며 "상식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필요하다면 동의할 수 있는 국회 운영 방식에서 우리가 충분히 동의를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의석수가 3석 모자라 퍼스트랙 법안처리가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열린민주당의 3석을 포함하면 180석이 확보되는 만큼 실제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



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의석) 수보다는 국가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180석이 넘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얘기는 최고위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의견이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지도부 사이에서도 열린민주당은 언젠간 손을 잡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어 21대 국회 개원 이후 필요

에 따라 두 당의 합당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당선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이 안고 가야 할 부분이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지금 당장 해야 할 필요성이나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연대 성격으로 가는 것이 충분하다"면서도 "전당대회 이후로 합당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합당을) 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추동명 기자

코로나 재확산에 문대통령 지지율 71%→65%

민주당 46%→44%, 통합당 17%→19% 무당층 23%

31% △30대 82% 대 14% △40대 70% 대 24% △50대 64% 대 29% △60대 이상 60% 대 31%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88%, 중도층에서도 65%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수층에서의 긍/부정률은 지난주 46%/44%로 엇비슷했으나, 이번 주는 40%/53%로 다시 부정률이 앞섰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49%)'가 1위를 차지했고,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복지 확대'(이상 7%)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응답은 14주째 긍정 평가 이유 1순위에 올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0%), '코로나19 대처 미흡'(10%),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과 '전반적으로 부족하다'(이상 8%) 등을 꼽았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6주 연속 경제/민생 문제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당층 23%, 미래통합당 19%, 정

의당 7%, 열린민주당 4%, 국민의당 3% 순이며 그 외 정당들의 합이 2%다. 미래통합당은 통합 아래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주(17%)보다 2%p 상승했고,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은 변함없었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3%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의 50%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4%, 미래통합당 14% 등이며, 24%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혔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39%로 가장 많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세태 기자

주한미대사워싱턴주지사, 전북에 감사

전북도는 15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가 전북에 감사 서한을 보내왔다.

지난 14일 도착한 것으로 확인된 서신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워싱턴주와 뉴저지주에 전북이 방역물품을 지원한 데 따른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다. 워싱턴주와 뉴저지주는 전북도의 자매결연 지역이다.

앞서 전북도는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급증으로 세계 최다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자 2개 지역에 위로서한과 방역보호복 1200벌, 의료용 장갑 1만4000켤레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전북도는 물품 배송 과정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항공배송, 미국 내 통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었던 데 대해 고마움을 전했으나 오히려 해리스 대사는 전북의 특별 지원에 더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정채우 기자

이낙연, 차기 지도자 선호도 28% 최고치 경신

이재명 11%, 안철수 3% 흥준표 2%, "보수 진영에 구심점 역할할 리더 없어"



이낙연 전 총리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28%를 기록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위를 굳건히 했다. 반면 4·15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8%에서 1%로 급락했다.

여론조사 전문 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28%가 이낙연 전 총리를 꼽았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7~8일 조사한 결과 26%보다 2%p 상승했다.

이 전 총리는 5개월 연속 전국 선호도 20%를 넘었고, 이번 조사에서 지난 1월 둘째 주에 기록한 최고치(27%)를 경신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7%), 성향 진보층(46%), 광주/전라 지역(49%),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40%), 연령 30대(40%) 등에서 특히 높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과 같은 11%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 흥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2%), 윤석열 검찰총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상 1%) 순으로 나타났다. 5%는 그 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47%는 특정 인을 답하지 않았다.

/박세태 기자

미국무차관보 "미국은 방위비 협상서 유연성 보여"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14일(현지시간) 미국은 그동안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왔다면서 한국 정부를 거듭 압박했다.

대대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하는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난해 1조 389억원보다 53% 인상된 13억 달러(약 1조 5900억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을 향해 처음 제시한 50억 달러에 비해 자신들이 많이 양보했으니 이제는 한국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개적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부차관보는 지난 5일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우리 쪽은 지금까지 유연했다고 생각하며, 한국 쪽이 유연성을 보다 더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쿠퍼 차관보는 "양국 정부는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계속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정채우 기자

고양시는 코로나-19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선을 다하겠습니다

I 고양시 소상공인 지원 안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 대상 창업 2개월 이상 소상공인
- 한도액 업체당 최대 5천만원
- 이자지원 최대 2%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대상 창업 3개월 이상 소상공인 (3월~4월 중 고양시 홈페이지 공고)
- 자원규모 점포당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70% (최대200만원) 간판교체, 인테리어 (도배, 조명 등), 진열대 개선 등

중소기업 특례보증

- 대상 제조업에서 비제조업까지 확대 지원
- 한도액 업체당 최대 3억원

상하수도 요금50% 감면

- 감면기간 신청서 제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 감면대상 코로나19로부터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농업인
- 신청방법 소상공인 확인서, 농업경제 등록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

코로나-19,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수돗물로 전기 만드는 소수력 발전 설비 가동

용인, 남사배수지에 발전설비 2대 설치 연간 25만kWh 목표

남사배수지로 이어질 때의 고도차이 이용 설비를 돌리는 것

경기 용인시는 최근 수돗물이 25m 높은 곳에서 흘러 내려오는 남사배수지 인근의 지형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소수력 발전 설비 가동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처인구 모현읍 용인정수장에서 나온 송수관이 이동면 서리재 고개(140m)를 넘어 남사면 완장리 소재 남사배수지(115m)로 이어질 때의 고도차이를 이용해 설비를 돌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2억1600만원을 투입해 지난 4월 남사배수지 상수도 배관 안에 수차형 발전설비(30kW) 2대를 설치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수도관 안에 설치한 모든 부품은 수도법에서 정한 위생안전 기준인 KC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했다.

시는 이 발전설비를 가동해 연간 25만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해 연간 3천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생산된 전기 판매를 위해 지난 4월 한국전력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설비 가동으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발생량을 연간 115톤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소수력 발전 설비 설치로 수돗물이 흐르는 것만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 미래세대에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년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인 ‘전력요금 절감 배수지 운



영 시스템’으로 전력 사용을 최소화해 연간 3억원의 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난해 국

비 1억9천만원을 지원받아 용인정수장의 노후펌프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유기영 기자

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14건 적발

불법행위 수사 결과 9개 업체 14건 적발

생명존중 복지 위해 동물학대 지속 수사

전기 쇠꼬챙이로 주둥이나 귀를 찔러 개를 도살한 농장주와 반려동물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카페를 운영하며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이 가운데 9개 업체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14건의 위법행위는 ▲동물 학대행위 2건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가축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평택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농장주는 개 250두를 사육하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 도축한 행위를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판결(대법원 2020.4.9. 선고, 2020도1132)한 바 있다.

안성 소재 B농장주 역시 1997년부터 연간 100여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개의 귀를 찔러 도살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이들 두 농장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개의 머이로 주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폐목재 소각시설을 작업장 보온에 사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개를 둑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 도축한 행위를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판결(대법원 2020.4.9. 선고, 2020도1132)한 바 있다.

성남 소재 C, D업소와 부천 소재

E업소는 무등록 상태에서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해 오다가 적발됐다.

또한 개 사육면적 60m2 이상이면 관할 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업소 2곳도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원/유기서 기자

소비자신뢰개선, 농산물판로확대

경남도가 농산물분야 우수상품 93개 품목을 경상남도추천상품(qc)으로 인증했다.

경남도는 최근 학계, 공무원, 검사기관, 생산자 단체 종사자 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농산물분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93개 품목을 경상남도 추천상품으로 최종 인증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진주시의 마, 우영 및 양산시의 상황버섯과 거제시의 알로에 등 농산물 4개 품목과 남해, 하동, 함양 등에서 제조된 89개 농산물가공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된 제품은 출하 시 경상남도추천상품 로고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다.

경상남도추천상품으로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통합쇼핑몰인 e경남몰에 입점 및 온라인 판매자원, 홍보, 택배비 및 카드수수료가 지원되고 국내외 마케팅 참가 기회 확대 및 tv홈쇼핑 지원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심의 후, “시장·군수가 추천하고 우리도가 인증한 qc상품이 도내 우수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생산자의 판로개척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의정부시 중국 차하얼학회에 감사패 전달

마스크 5만장 기부에 감사의 의미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큰 힘이 되길 기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중국 차하얼학회에 마스크 5만장 기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중국 차하얼학회 한광명(韓方明) 회장을 대신하여 오정(吳征) 차하얼학회 부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는 대신 참석한 오정(吳征) 부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정(吳征) 차하얼학회 부이사장은 “아름다운 산과 멋진 경관을 지닌 의정부시 첫 방문에 이렇게 감사패를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의정부 시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큰 힘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한·중 양



국이 코로나19와 싸우는 중대한 시기에 서로에게 보여준 격려와 지원은 우리 의정부시에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한·중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외교 및 경제 분야 등 다방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차하얼학회는 한광명(韓方明) 회장이 대표로 있는 비정부기구이며 2009년 10월에 발족한 외교 및 국제관계 전문 민간 싱크탱크이다.

의정부/김승곤 기자

양평군, 남·북한강 다슬기 방류 행사 개최

경기 양평군에서는 군내 내수면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최근 수산자원조성 다슬기 방류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동균 양평군수, 조병덕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순식 축산과장, 김남성 양평어촌계장을 비롯한 어민 40여명이 방류행사에 참여하였다.

다슬기는 물고기 배설물과 이끼 등을 섭취하여 자연적 수질정화 효과가 있고,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에 간질환 치료와 숙취해소, 신경통, 시력보호, 빈혈, 위통, 소화불량, 간열과 눈의 충혈, 통증을 다스리고 신장에 작용 등을 치료하고, 체내 독소 배출, 신장·담낭 결석예방, 부종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

청정 일급수에 서식하는 다슬기는



하천의 청소부로 불리며 양평군은 건강한 하천생태계 보존과 자원조성을 위해 관내 남·북한강에 최근 7년 동안 약 14,796천마리를 방류하였다.

방류행사에서 정동균 양평군수는 “양평군은 수질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지역으로 앞으로도 하천 수질 보전과 어족지원 증강을 위해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평/이근학 기자

부산시, 해양바이오·수산기업 국제인증

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내 해양·수산바이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바이오기업 국제인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화 지원’ 및 ‘해외 비즈니스 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국제인증 획득 전후 시장진입을 위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은 제품개발비, 시험분석, 디자인 개발비 등을 8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해외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을 4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부산시에 본사를 두고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로 기업부담금은 사업비의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해양바이오·수산기업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보다 나은 농어촌



한국농어촌공사

**생명산업의 뿌리, 농어촌용수
물길이 생명길입니다**

국토의 생명물길, 농어촌용수
건강한 물순환을 변함없이 지켜가겠습니다

국토의 물길을 관리하는 것은 인체의 혈관처럼 생명을 주관하는 가치있는 일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물려주는 일,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합니다.

고양시, “랜선예산학교” 실시, 돌보이는 시민 중심 시정

주민참여예산제 강화, 선제적 대응 등 두 마리 토끼 잡아낼 것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던 학교 20일부터 온라인 교육 대체 진행

최근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방침 이후 다시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향후 진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전반을 온라인 중심 제도로 전격 전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주민참여예산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던 예산학교를 오는 5월 20일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진행한다.

앞서 공고한 시민 공모사업의 제안 기한이 6월인 점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고려, 사전에 교육을 시행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빨 빠르게 조치한 결과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기도와의 협업을 통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학습플랫폼(GSEEK)을 차용해 강좌를 개설·운영하기로 했다는 점

이다. 시는 운영방식 결정을 놓고 온라인 생중계 등을 다양하게 검토했으나, 누구나 일정기간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편리함과 수강관리 기능 등을 갖춘 학습 전용 사이트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 평생교육과와 협의, 시 자체 플랫폼 구축에 드는 개발시간과 예산 낭비를 없애고 온라인 전환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이러한 경기도-시·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온라인 예산학교 개최는 도 자체 중 고양시가 유일하다.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2020년 온라인 예산학교는 ▲고양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제안사업 함께 만들기 등 총 3강으로 구성된다.

올 한해 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진행 일정이 고스란히 담긴 맞춤형 강의와

온라인의 한계를 극복한 제안 실습과정 등을 마련해, 단순 상설강좌가 아닌 실시간 강의와 유사한 소통교육을 구현함으로써 기존 예산학교의 실질적인 대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예산학교는 희망하는 시민들의 자율수강 외에도 수료증 인증을 통해 고양청소년재단 활동평가, 차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선별 조건 등과 다양하게 연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역시 온라인방식에 치중한다. 앞서 시민제안사업 공모를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장소에 배포했으나, 밀집시설 방문을 자체하고 비대면 '랜선 라이프'가 확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SNS 서포터즈를 통한 시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포터즈의 주요 활동은 작은 아디어로 대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가져온 타 지역의 실제 사례들을 조사해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모에 참여할 의사는 있으나 제안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내 주변지역을 새로운 눈으로 둘러보게 함으로써 고양시로의 벤치마킹을 유

도하는 중개 역할을 특특히 하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관공서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전형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민이 홍보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생산·확산시키는 능동적인 시정홍보를 구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시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최초로 시행한 고양시의 한 발 앞선 정책기조에 걸맞은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강화와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다.

김운영 고양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을 살펴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시민참여예산 한마당도 온라인 운영을 고안할 계획"이라며, "이런 때 일수록 생활 속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영해주는 시민밀착형 사업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마음을 이루만져 주어야 한다.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시민제안사업 공모에 활발히 참여해 달라."고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고양/김성태 기자

캔·페트병을 현금으로... 여수, 인공지능 수거기 '확대'

캔·페트병 개당 10포인트 적립
2,000포인트 이상 현금으로 전환



480여만 개(9만 7천여 톤)의 분리수거 실적을 거두었으며 시민들에게 현금 4천6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소호요트경기장, 선원공원, 미평공원, 응천친수공원, 오동도 등 5개소에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를 올해 10대 추가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8대를 신규 설치한데 이어 올해 10대를 추가해 총 18대를 운영하게 됐다.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는 캔이나 페트병을 넣으면 품목별로 압착하여 수거한 뒤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캔과 페트병 각 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회원 가입자가 2천 포인트 이상 모으면 본인 계좌로 이체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의 현금 전환은 수퍼빈 홈페이지(www.superbin.co.kr)에서 회원가입 후 전환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2019년 5월 설치 후 올해 4월까지 운영한 결과, 캔과 페트병

여수/김상면 기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위원회 개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공모사업
공모사업자 선정을 위해 진행

경기 의정부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황범순 부시장의 주재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2020년 의정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공모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진행됐다.

2020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모집·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구성원의 협력도 등 4개 항목에 대해 심사하여 7개의 마을공동체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감량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원순환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자원 재활용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소수가 독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로수 뜨개옷 입히기 사업은 생활 속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해하고 누구나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활동모델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자체

선정한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정 공모한 사업이다.

2020년 의정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공모사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인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내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5개 기업에 대해 사업계획, 기업 성장성, 사회적 가치 등 3개 항목을 심사하여 3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홍보비, 시제품 제작비 등 총 1천 8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의정부시는 선정된 공동체 및 기업에 대해 회계 교육 및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 보다 많은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황범순 부시장은 "시의 크고 작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그 해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시의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가치가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승곤 기자

담양,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제품 가격 기준 80%~90% 지원,
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전남 담양군이 다음달 19일까지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담양군민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등이다.

지원대상자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으로 80%까지 정부지원을 받고 20%만 개인이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9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달 19일까지며 정

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 또는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자치행정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또는 군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김용학 기자

파주시, '한국문화가치대상' 최우수상 영예

경기 파주시가 한국문화가치연구 협회 주관 '제2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최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체와 226개 기초자체 단체장의 민선7기 문화정책 공약을 대상으로 문화정책 전문가의 1·2차에 걸친 평가위원회가 실현 가능성, 이행 실태, 지역문화 발전과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3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이중 파주시는 인구 10만~50만 미만 전국 기초자치단체 대상 평가에서 최우수에 선정됐으며 도내 31개 시, 군 중 유일하게 최우수 수상으로 문화가치 확산에 앞장서게 되었다.

파주시는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

파주/김성태 기자

포천쌀 우수 생산단지에 농기계 전달·모내기

경기 포천시는 최근 3.1운동 100주년 기념 '임명매'지사를 재조명한 창작뮤지컬 '명예' 공연 ▲문화역사관광벨트 조성 ▲통일동산지구 활성화 등

파주만의 특수한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종한 파주시장은 "파주 문화의 역사적 가치와 우수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파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 더욱 매력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문화가치대상' 시상식은 오는 2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수상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파주/김승곤 기자

농협 파머스 마켓 안전한 먹거리, 행복한 쇼핑은 농협 파머스 마켓에서...

검색창에서 농협파머스마켓 검색하세요!!

<http://nhfm.co.kr>



밭에서 방금 수확한 [신선함]

농가의 얼굴이 담겨 있는 [신뢰성]

친환경 재배에 의한 [안정성]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로 [저렴성]

우리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애향심]

- 농산, 공산, 축산품, 수산코너 외에도 로컬푸드, 즉석식품, 선식, 문구·완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약 1만명의 멤버를 보유하고 있는 영주농협 파머스마켓의 밴드를 통해 매주 행사 및 다양한 소식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밴드를 통해 공동구매도 시행하였고, 밴드 멤버분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농협파머스마켓 쇼핑몰 모바일앱이 개설되어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신 후 손쉽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DREAMING WITH YOU AND NH
농촌과 도시가 서로 행복해지도록 영주농협이 함께 합니다

운수종사자, 외국인 등 코로나19 사각지대 지원 확대

편성사각지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지역경제 회복

고용 확대 시책사업, 지역현안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

시흥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조 147억 원 규모의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지역경제 회복 및 고용 확대 시책사업, 지역현안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7,388억 원 대비 2,759억 원(15.9%) 증대한 민국 6차산업 대표모델 조성에 박차계는 2,658억 원이 증가한 1조 3,944억 원이다.

이는 지난 4월 의결된 코로나19 1회 추경 1,001억 원에 이은 올해 두 번째 긴급 추경으로 당시 지원 규모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시흥시는 이번 추경예산의 부족한 사용원 확보를 위해 공공분야의 경비 절감과 코로나19로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의 예산 조정, 기존사업의 공정 시기 등을 재검토해 감액 편성하는 등 마른 수건을 짜내는 심정

으로 최대한의 재원을 마련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회전기금 자금을 일반회계로 차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계 및 소득 보장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 추경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1,135억)의 신속한 지원,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매출액 3억 원 미만 소상공인 및 운수종사자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추가(부족)분 20억 원, 관내 거주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시흥시 재난기본소득(10만 원) 원 지급 10억 원을 반영하는 등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700여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 관리기금에 50억 원, 소래산 첫마을 등 도시재생사업에 64억 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이전설치 28억 원 등 복지수요 예산에 250여억 원, 목감·



은계2 어울림센터 20억 원 등 지역 현안 및 기반시설 투자사업으로 300여억 원을 편성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 위기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및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730억 원 등을 편성한 바 있으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임시회를 거쳐 오는 22일 확정될 예정이다.

시흥/길대성 기자

광명시, 기후에너지 정책 패널 키우기 간담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 전환 간담회
지자체 방향을 모색 위한 토론의 시간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에너지 정책 활성화 정보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관련 주요 부서(정책기획실, 도시재생과,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및 유관 단체(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가 함께 기후에너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는 광명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기 위해 에너지 전달 기관인 에너지공단과 거버넌스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간담회는 ▲최근 에너지 분야의 국내외 정책 동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동향 ▲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광명시 에너지 정책이 보다 실효성이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광명시는 올해가 에너지전환 및 정책 실현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협력해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등 광명시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광명/정채우 기자

성남시 소상공인·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코로나19 장기화 지원책
감액금 14억5000만원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개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도로법과 성남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로 규정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감면 지원책을 추진하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

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감액금은 14억5000만원이다.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사람은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서(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와 통장 사본을 허가지역 관할구청 건설과에 방문 또는 팩스(수정·031-729-5337, 중원·031-729-6526, 분당·031-729-7526)로 내면 된다.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환급한다.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감액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재발송한다.

성남시 도로과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고 경제적 어려움에 숨통을 터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김난희 기자

건축물 철거 해체 때 허가·신고 절차 이행 당부

용인시,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
연면적 500㎡ 이상 등 허가 필수

용인시는 14일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공사 진행 전에 반드시 신고나 허가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된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이 이달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나 연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물 높이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 건축물의 철거·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건축물 철거·

해체 등이다.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관련 절차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제부터는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때라도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용인/유기영 기자

시흥시 배곧생명공원 7월부터 '순찰 로봇'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3일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승인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시흥시 배곧생명공원에서 로봇 순찰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번 실증특례는 시흥시와 만도가 협력해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운영하는 것으로, 실증특례 기간은 2년이다.

시흥시는 이번 규제특례와 별도로 국토부의 '스마트 규제 혁신지구 지정'을 신청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첨단도시 조성을 위해 선진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규제 개



선을 통해 공공분야 서비스의 스마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흥/길대성 기자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착공식 개최



대한민국 6차산업 대표모델 조성 박차
거리두기 실천 위해 소규모로 진행

파주시는 최근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착공식에는 최종환 파주시장을 비롯해 범인 대표이사, 국회의원, 시의회 및 도·시의원, 범인 주주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소규모로 진행됐다.

파주시 대표 농특산품인 파주장단콩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체험·판매·외식·전시·융복합 컨텐츠 등을 통해 새로운 6차산업 관광 모델을 선도할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은 통일동산관광특구 내 탄현면 성동리 678, 682번지 일원 48,940㎡ 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 5개동 연면적 4,483㎡ 규모로 조성된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2천여 개의 옹기 장독대를 비롯해 장단콩 전통장류를 생산하는 생산가공동, 로컬푸드 직매장이 조성되는 판매관리동, 장단콩전시관·장단콩전문음식점·카페가 조성되는 전시외식동, 먹거리·문화 체험공간인 체험동, 세미나실·강당이 위치하는 문화동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 공사비 165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며 오는 2021년 7월 준공 후 시험가동 및 오픈준비 과정을 거쳐 9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양평군, 남·북한강 다슬기 방류 행사 개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어업인 소득증대
최근 7년 동안 약 14,796천마리를 방류



양평군에서는 군내 내수면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최근 수산자원조성 다슬기 방류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는 정동군 양평군수, 조병덕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순식 축산과장, 김남성 양평어촌계장을 비롯한 어민 40여명이 방류행사에 참여하였다.

다슬기는 물고기 배설물과 이끼 등을 섭취하여 자연적 수질정화 효과가 있고,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에 간질환 치료와 숙취해소, 신경통, 시력보호, 빈혈, 위통, 소화불량, 간열과 눈의 충혈, 통증을 다스리고 신장에 작용 등을 치료하고, 체내 독소 배출, 신장·담낭 결석예방, 부종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

정정 일급수에서 서식하는 다슬기는 하천의 청소부로 불리며 양평군은 건강한 하천생태계 보존과 자원조성을 위해 관내 남·북한강에 최근 7년 동안 약 14,796천마리를 방류하였다.

이날 방류행사에서 정동군 양평군수는 "양평군은 수질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지역으로 앞으로도 하천수질 보전과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남성 어촌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우수한 다슬기치과를 관내 남·북한강에 방류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생계유지 및 자본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며 감사하다"고 전했다.

양평/이근학 기자

고양시, 경제위기 극복... 여성기업인에게 듣다

여성기업경제인협의회 간담회 실시
‘활발한 소통’ 통해 기업지원 정책



고양시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을 줄여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다.

시는 최근 고양시 여성기업경제인협의회 회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대한 논의와 기업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 운전자금 이자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등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지원정책과 함께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고양폐기 인센티브 지원, △고양알바 2000, △상하수도 감면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공유하고 여성기업인들의 기업운영에 따른 고충과 애로사항, 시에 대한 건의 등 경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형순 재무국장을 "시에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잘 알지 못 한다"며 "여성경제인을 대상으로 고양시의 지원정책을 전달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는 기업지원과 기업SOS 팀, 공장등록팀,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이 함께 관내 기업인 단체들을 방문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고양/김성태 기자

하남시, 음식점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홍보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우려로 부터 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감염예방과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을 통해 음식점 영업자와 손님들의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늘며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가 요구되며 영업장 내 마무르는 시간최소화 하기, 술잔 돌리지 않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틸어 먹기 등 향후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업소에 대해 '인증

하남/이광희 기자

경기도,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100L→75L로 하향 추진

하향 도입 시·군 사례 공유, 환경미화원 근로 환경 개선

도내 4개 권역에서 5월 22일까지 총 4회 간담회 진행

경기도가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100L인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75L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시·군과 협의에 나섰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경기 남부권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북부권(14일), 동부권(19일), 서부권(22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시·군 청소부서 담당 과장과 권역별 환경미화원 등이 참여하는 ‘도-시·군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위험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100L 종량제봉투는 규정 상 한 무게가 25kg이지만, 압축해 버려질 경우 최대 45kg까지 무게가 늘어나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신체 손상,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기도 부천시가 100L짜리 종량제 봉투 생산을 중단하고 75L짜리 종량제 봉투를 신규로 제작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

기도 했다.

12일 진행된 남부권 간담회에는 수원, 성남, 안양, 군포, 의왕, 오산, 안성, 과천시가 참가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미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100L에서 75L로 하향 조정한 용인, 성남, 부천, 의정부 등 4개 시의 사례를 공유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 문제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임양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하향 조정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가능한 도내 많은 시·군에서 종량제봉투 용량을 조정해 환경미화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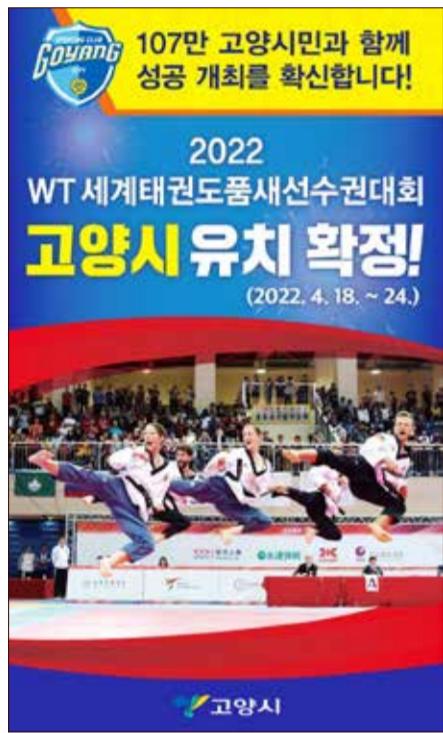
한편 경기도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환경미화원 등 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도는 2018년 9월 광교신청사에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공간을 기준 설계안보다 4.7배 확장한 것을 시작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단지에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도가 사전승인하는 30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민간건축물 사업 계획에 청소원 등의 휴게공간을 반영하는 내용의 허가증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수원/유기서 기자

고양시, WT 2022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유치



북한태권도시범단 공연 추진 예정
부가가치 창출 고용 창출 효과 기대

고양시가 2022년 열리는 WT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유치를 확정했다.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15년 만으로 북한 태권도시범단 및 개도국 선수단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WT 2022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세계 70여 개국 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메마드 국제태권도대회로 세계태권도연맹(WT)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5월 12일 WT집행위원회 회상회의를 열어 유치도시를 최종 확정했다.

대회기간은 2022년 4월 18일 ~ 24일로 한국이 이 대회를 개최한 것은 2007년 제2회 대회 이후 처음이다.

시는 대회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유치 공약으로 내건 북한 태권도시범단과 개발도상국 선수 초청 문제도 진행시켜 나갈 계획으로 세계평화와 남북 화해 무드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품새는 겨루기, 격파와 함께 태권도 3대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로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세계선수권대회는 남녀개인전, 단체전, 프리스타일 등 총 36개의 세부 경기가 펼쳐진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는 관람형 태권도사업의 하나인 ‘태권도 프리미어 리그’ 시연대회는 6월 고양체육관에서 개최하는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고양/김성태 기자

양주지역자활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최종 인가

양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최희동)가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협동조합 최종 인가를 받았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이다.

센터는 저소득층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근로역량 강화와 자활사업 확대 등 안정적인 취업기관으로의 성장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

를 직접 고용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근로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돋구고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0여 개의 자활근로사업단에서 90여 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주/김성곤 기자

파주시, 자동차 델 타고 인센티브 받으세요

파주시는 기존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오는 12월에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이나, 상품권,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파주/김성태 기자

‘고양 삼송우미라피아노’분양 화제

오금천과 오금공원을 품은 자연환경과 뛰어난 서울 접근성 보유
주택의 여유로움과 아파트의 편리함을 같이 누리는 주거공간 527세대



우미건설이 이달경기도 고양 삼송지구에서 ‘고양삼송우미라피아노’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삼송우미라피아노’는 우미건설이디벨로퍼알비디케이(RBDK)와 함께 시행 리츠에 참여하고 시공한다. 경기 고양 삼송지구를 롤형 단독주택용지 9-1, 9-2BL, 연립주택용지 B-3, B-6, B7BL에서 527가구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고양삼송우미라피아노’는 다양한 평면설계로 자신만의 주거공간

을 선택할 수 있고 아파트와 같은 보안·편의서비스까지 갖춘 새로운 주거공간이다.

아파트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락방, 테라스 등을 제공해 단독주택과 같은 다양한 공간구성을 갖추고 있다. 입주 민 전용 커뮤니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CCTV 등 보안 시스템도 갖춰 아파트와 같은 주거편의성을 갖췄다.

서울을 접근성도 뛰어나다. 지구 내에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있으며 현재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있다. 주후 개

덕은지구 A6블록, 전용84~99㎡ 총 620가구 공급…사이버 모델하우스로만 운영
총 1600여 가구 ‘자이’ 브랜드 타운의 완성…인근 지역 가치 상승 기대

서울 생활권 누리는 핵심 입지…미디어밸리, 수색역세권 등 풍부한 개발호재



GS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A6블록에서 ‘DMC리버시티자이’를 5월 15일 오픈하고 분양 예정이라고 밝혔다.

DMC리버시티자이는 지하 2층~지상 24층, 7개동, 전용면적 84~99㎡ 620가구 규모로 이주대책 대상자 우선 분양을 제외한 53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84㎡A 143가구, 전용면적 84㎡B 151가구, 전용면적 84㎡C 162가구, 전용면적 84㎡D 46가구, 전용면적 99㎡

고양시, 한강하구 보물찾기 AR사업 추진

한강하구 생태 역사 평화 콘텐츠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한강하구의 생태·역사·평화 콘텐츠를 활용한 ‘한강하구 보물찾기 AR사업’에 물꼬를 냈다.

시는 총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들여 한강하구를 아름다운 생태 자연과 함께 풍성한 체험이 있는 장소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강하구 보물찾기 AR사업은 경재정선의 행호관어도를 재현해 조선시대 별장과 응어배를 만나고,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장항습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행주산성에서 태임마신을 타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등 고양시 한강 하구에 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도 VR/AR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로 수요 기관이 사업을 제시하고 관련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 1:1 면접 후 다시 공모에 응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고양시의 경우 ‘한강하구 보물찾기 AR사업’에 AI기반 AR전문업체인 이한크리에이티브와 매크로우(주)가 참여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해 지난 4월 10일 경기 VR/AR 오디션을 통과하며 최종 선정됐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고양시(수요처)는 5월 4일 경기콘텐츠진흥원(지원기관), 이한크리에이티브(공급처)와 3자간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비는 총 1억 6천만 원으로 경기도지원금(경기콘텐츠진흥원) 1억 원, 고양시 지원금 5천만 원, 전문업체 자부담 1천만 원이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올 해 한강하구에는 생태·역사 관광 벨트 조성사업,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등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함께 도보관광 등 상설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라며 “이번 AR사업이 더욱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성태 기자

광주도시관리공사, 방류수 재이용 협약 체결

포스코건설, 대쌍령리 쌍용건설 현장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는㈜포스코건설, 쌍용건설㈜과 최근 막은 물복원센터 방류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포와 곤지암 막은 물복원센터에서 방류하는 하수처리수 중 각각 하루 100톤 규모를 ㈜포스코건설과 쌍용건설㈜에 무상 공급하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재이용하게 된다.

공사의 하수처리수 제공으로 ㈜포스코건설과 쌍용건설㈜은 실수자 활용하여 방류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아 ▲관내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제거 ▲건설현장 인근 시민들의 민원발생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하천의 건천화 방지 ▲클린 광주시설 건설 ▲물 자원의 효과적 활용 등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약식에 참여한 ㈜포스코건설과 쌍용건설㈜는 연말 광주시 이웃돕기 성금 기탁을 통해 광주도시

관리공사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유승하 사장은 “벼려지는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통해 광주시민들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광주시의 많은 기업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경안 등 맑은 물복원센터 총 10개소에서 연간 약 15백만 톤, 전체 하수처리수의 약 30%의 방류수를 장내용수(공업용수, 하천정화수) 및 장내용수(세척수, 조경용수)로 재이용하고 있다.

광주/이근학 기자

GS건설, DMC리버시티자이 견본주택 15일 오픈 예정

로, 올림픽대로, 월드컵로 등을 이용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DMC리버시티자이는 자이 브랜드에 걸맞는 특화설계도 적용된다. 전력회생형 엘리베이터나 세대 내 주방 절수페달, 고요율 LED조명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며 자이에만 적용되는 국내최초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인 ‘시스클라인’이 거실과 주방에 기본으로 제공된다.

분양관계자는 “덕은지구는 서울 마포구, 강서구 등과 맞닿은 사설상 서울 생활권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본격적인 분양 전부터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들이 많다”며 “DMC리버시티자이는 실물 견본주택 없이 100% 사이버 모델하우스로만 운영되는 만큼 온라인 홈페이지 및 다양한 상담 창구를 통해 예비 청약자들이 편리하게 분양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관계자는 “예전에는 기술 부족으로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사이버 견본주택 관리를 VR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게 됐는데 따라 100%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코로나19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분양문의 : 031-926-3589

고양/김성태 기자

경북도, 정부 R&D 투자 공모사업 잇단 선정

16개 사업 국비 4,940억 원 확보…총 1조 1,407억 원 투입

새로운 미래산업 준비로 코로나19 산업위기 극복 발판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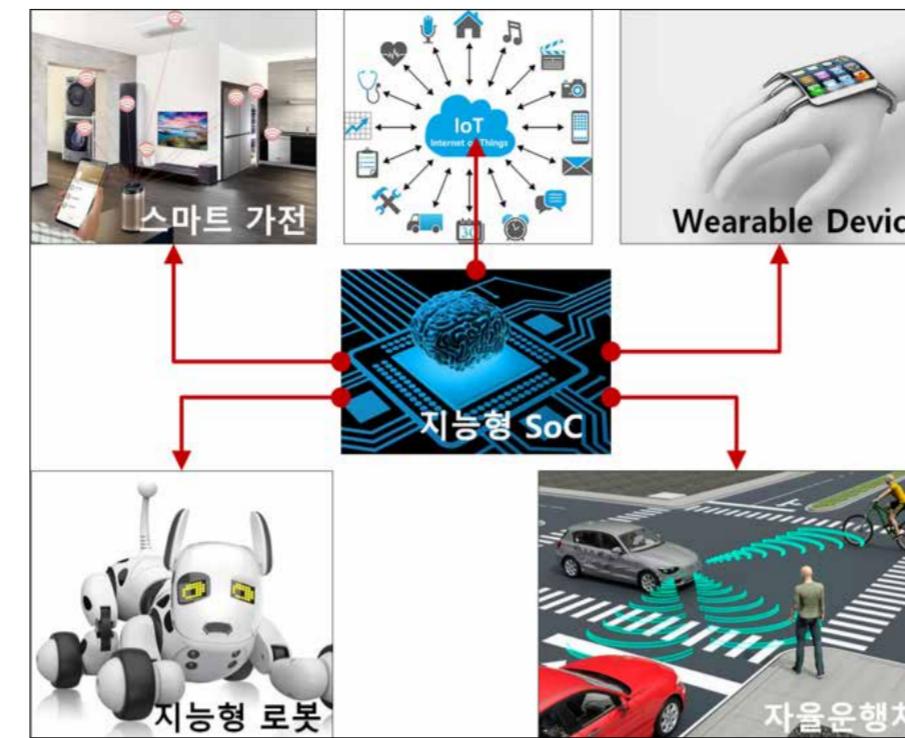
경상북도는 금년 들어 정부 과학기술·산업분야의 각종 R&D 투자 공모에서 16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4,940억 원을 확보하고 앞으로 총 1조 1,407억 원의 사업비를 새로운 미래산업 육성에 투입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과학 산업분야 국가지원 사업은 대부분 공모를 통해 진행되는데 선정된 사업은 그만큼 경쟁력이 담보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37개 사업에 국비 4,585억 원(총사업비 7,369억 원)을 확보한 것과 비교할 때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는 우수한 공모선정 성과를 내고 있다.

선정된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과학기술 분야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9,926억 원)과 로봇직업 혁신센터 구축(295억 원)사업이 선정되었다.

특히, 지난 7일 최종 선정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3년간 총사업비 9,926억 원(국비 4,121억 원)이 투입돼 구미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김천·외관·성주 산업단지를 연계한 신소재산업 벨트를 조성하여 지역 제조업의 구조조화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생산 유발과 신규고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 것으로 본다.

첨단 기능성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육성은 지역 수요 기업에 안광학 렌즈의 제품개발과 소재 개발을 위해 시험분석, 인증지원, 시제품 및 시생산 공정을 지원하여 콘택트 렌즈 등 인체부착형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육성(130억 원)사업 등이 선정됐다.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은 탄소복합재의 재활용 및 재제조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 향후 항공기와 자동차 분야의 고성능 및 고기능 복합재 부품 재활용 및 제품 가치 향상과 관련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

이 협력해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국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정부 공모사업에 빨 빠르게 대응한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경제혁신을 위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사업에 지역의 강점을 살린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국책사업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조 기자

경주시, 양북·양남 청정해역에 어린 전복 방류

4개 어촌계 마을어장에 '
전복 치파 29만 마리 방류



였다.

양북·양남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참전복은 치파에서 성파까지 연안 해역에 자생하는 미역, 다시마, 감태 등의 질 좋은 갈조류를 섭취하며 천천히 성장해 육질이 단단하고 영양 소가 높아 동해안 전복 중에서도 최고 품질로 손꼽힌다.

경주시 관계자는 “수산자원 조성

을 위한 방류 사업은 어촌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 어민들에게 매우 반응이 좋은 사업”이라며, 경제성이 있는 다양한 어부류의 지속적인 방류 사업을 통해 경주 바다의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이철우표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운동, 100억 원 돌파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온오프라인 행사
'품앗이 완판운동'은 생산자소비자 모두 도움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과 초·중·고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를 돋기 위해 시작된 ‘힘내라(ower up) 대구경북’ 「이철우’표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운동」(이하 품앗이 완판운동)이 9주 만에 105억 6,000만 원(‘20.5.13 현재)의 판매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올 3월초 시작된 ‘품앗이 완판운동’은 당초 도청, 교육청, 농협지역본부 등 도청신도시 중심의 판매에서 출발해 대구시청, 인천지방경찰청, 제2군 작전사령부 등 온·오프라인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그간 경북도에서는 오프라인 행사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판매, 시군요정 농산물 판매, 전국 이마트 139개 매장에서 열린 경북 농산물 소비촉진 판매전, 안테나숍 농식품 특별 판매전, 코로나19 의료진과 일컴 공급, 드라이브 스루 농특산물 판매 등 20개 시군에서 주관한 농특산물 판매행사로 총 68억 6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온라인 행사로는 경북 쇼핑몰 연합 특별할인 행사, ‘사이소’ 쇼핑몰 내 코로나19 피해농가 전문관 개설, 위메프·쿠팡 등 ‘사이소’ 제휴 몸과 연계한 경북 농특산물 판촉전, ‘사이소’와 지역농산물축제가 함께 하는 온라인 농산물 축제, 면역력 강화상품 특별판매전 등 총 37억 원의 판매고를 올려 전년대비 36배 이상 급증했다.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구미 한송이 농장 대표 고석배씨(52세)는 “코로나19와 따뜻한 날씨로 표고버섯 판로가 막혀 어쩔 줄 몰랐는데, 품앗이 완판운동에 참여하고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인사를 잊지 않았다.

이철우 도지사는 “품앗이 완판운동에 동참해주신 전국 소비자들의 큰 호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번 더 감사 드린다”며 “경북도는 다양한 농산물 판로확보와 소비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조 기자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깨끗하고 청결한 선비의 고장,
행복영주 건설 위해 최선 다할 것



영주시는 최근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풀리미건축사사무소(주)’의 1인 공동 응모작’의 조감도 등을 공개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3월 11일 공고해 총 42팀이 공모전 작품 출품, 1차 제안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풀리미건축사사무소(주)의 1인 공동 응모작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당선작은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를 도서관과 융합된 새로운 유형의 공공시설로 모든 세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주변 맥락을 고려한 연계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영주/정승조 기자

화랑마을에 가면, ‘꽝!’을 찾아라??!

육부촌·아영장 평일 이용객 대상 이벤트
코로나19로 자진 이용객 애증가로 주기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인 경주화랑마을은 오는 28일까지 2주간 평일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어 지난 8일부터 육부촌·아영장의 운영을 재개한 화랑마을은 육부촌·아영장 평일 이용객(입실일 기준 일~목)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간은 입실일 기준 1차는 17일부터 21일까지, 2차는 24일부터 28일까지이며, 퇴실 시 육부촌 관리를 방문한 육부촌·아영장의 평일 이용객의 경우 방 또는 사이트당 상품 뽑기 1회는 무조건 가능하며, 자신의 SNS에 육부촌·아영장 이용 후기를 남긴 후 화랑마을 페이스북 좋아요와 팔로워를 한 후 직원에게 보여주면 한 번 더 가능하다.

상품은 뽑기 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화랑마을 연필세트 1통, 경주/한반식 기자



화랑마을 수간, 수제비누 등이다.

화랑마을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화랑마을 운영 재개를 알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이용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며, “가족 간에 화랑마을을 이용하고 재미도 찾고 돌아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화랑마을은 지난 8일부터 육부촌·아영장 이용객 전원을 대상으로 밸얼제크와 방명록 작성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18일에는 전시관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경주/한반식 기자

경북 세일 페스타 개시 일주일 만에 41억 원 판매

경북 세일 페스타로 지역기업 숨통 트여
1,285개 기업 참여, 우수기업 지속 발굴

여수시, 2020 국가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14일 서울 롯데호텔서 시상식 열려

국제 해양관광 휴양도시 부문 대상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5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국내 최고의 국제 해양관광 휴양도시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여수시는 최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1회 2020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국제 해양관광 휴양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중央일보가 주관하는 국가브랜드 대상은 사전 기초조사 및 소비자 설문조사, 전문가 최종심사를 바탕으로 선출되는 경쟁력지수(NCI)에 따라 국내의 산업, 도시, 농·식품, 문화를 대표하는 부문별 최고의 브랜드에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2019년 10월 7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전국의 광역·기초지자체와 기업에 대해 심사한 결과 경쟁

력지수 77.5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목포시, 거제시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은 보석 같은 365개의 섬이 펼쳐진 빼어난 해양경관, 풍성한 먹거리와 여수밤바다, 낭만버스, 이순신스토리텔링 산책투어 등 여수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높게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침체 속에서도 관광시설 및 안내소에 대한 일제방역과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여수 여행 시 지켜야 할 수칙'을 카드뉴스로 제작, SNS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는 등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여수시의 선제적 방역 대응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2월 여수와 고흥 사이 4개 섬을 잇는 연륙·연도교가 개통되



어, 다도해의 푸른바다와 섬, 낭만적인 야간조명이 어우러진 명품 드라이브 코스로 여수관광의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앞으로 체험위주의 휴식·휴양과 음식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관광트렌드에 최적화된 여수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명품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발돋움할 미래를 다 함께 지켜봐 달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여수/김상면 기자

순천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개발 본격 활용

상단부 녹색 사선은 조계산 도립공원, 하단부 순천만습지와 칠면초 군락상징

는 동천, 순천의 이니셜, 그리고 순천만습지의 아름다운 s자 형상, 중앙의 원형은 생물권보전지역의 마을을 상징하고 있다.

하단부의 USBR은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의 이니셜이며, 순천만습지의 대표적 철새인 흑두루미가 순천만습지에서 힘차게 비상하는 형상을 담고 있다. 브랜드는 전체적으로 지구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 이는 자연을 존중하고,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시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자연과 문화가 있는 조계산, 생태계의 보고인 순천만습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을 상징하여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강조하고 있다.

* USBR : Unesco Suncheon Biosphere Reserve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는 정부 친환경인증, 전라남도 및 순천시 품질인증 상품 등 1차 생산품 및 이



를 주원료로 가공하여 만든 가공품 등에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간이며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순천/최종기 대기자

화순군, 농업기계 장기임대 사업

화순군(군수 구종곤)이 농업기계 장기임대 사업인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4억을 투입해 일관기계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최근에 2억 원을 들여 옥수수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매, 농업 단체 1곳과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2차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1개소를 추가 추진한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콩, 고추, 잡채 등 주요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를 내용연수 이상으로

장기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역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농업기계 구입비의 20%를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로 내고 임대기간에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리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061-379-5476)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이윤상 기자

여수시, '대형 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안전사고 예방

대형 건축·토목공사현장 51개소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여수시가 최근 일주일간 관내 대형 공사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시는 건축공사 10억 원, 토목공사 5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 총 51곳을 점검했다. 용접 현장에 소화기가 없거나 전기시설 접지상태 불량, 현장 근로자 이동 통로 미확보 등 총 46 건을 적발, 현지 시정 조치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를 통해 보수·보강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도 함께 홍보했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대형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

영암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설치

우리나라 법정주소는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약 1억여원을 투입해 다양한 종류의 안내시설물을 설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금번에 설치하는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은 도로 및 건물에 대한 위치 등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물로, 320개소(보행자용 도로명판 203개, 차량용 도로명판 11개, 기초번호판 72개, 국가지점번호판 34개소)를 설치중에 있다.

특히,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차량용과는 달리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춰 비교적 낮은 장소에 설치하여 목적지를 수월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교차로와 마을 내 갈림길 등에 설치하며, 도로변의 기초번호판과 산악, 해양 등에 설치하는 국가지점번호판은

긴급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시 사고지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번호판으로, 국가지점번호판의 경우 등산객이 많이 찾는 금정면 국사봉과 백룡산 일원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으로 군민들이 편리하게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은 물론 주변에 설치하는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암/이영석 기자

장흥군, "저녹스 보일러 설치하고 보조금 받으세요"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열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낮추고 연간 최대 13만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 환경과 가정경제 모두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사업 대상은 LNG 도시가스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지역민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1대당 2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종순 군수는 "저녹스 보일러 설

표고버섯, 키조개로 만든 떡갈비 개발 시식회 개최, 맛과 영양가치 높은 점수



장흥군이 '장흥한우삼합 떡갈비'를 개발해 최근 첫 선을 보였다. '장흥한우삼합 떡갈비'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장흥한우, 키조개, 표고버섯을 주재료로 만들어졌다.

최근 장흥한우협회에서 열린 시식회는 지역 주민과 각계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장흥한우삼합 떡갈비는 장흥한우 융복합 산업화사업단에서 전문가 그룹과 함께 연구하고, (주)인스키친의 신효섭 세프가 떡갈비 레시피 개발에 참여해 출시된 제품이다.

이날 시식회 참석자들은 맛과 향, 식감이 일품인 떡갈비의 진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내놨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한우 떡갈비는 한우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어서 만든 것들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김종현 기자

구례경찰서, 실종 치매·지적장애인 발견자 감사장

치매실종 3일만에 가족 품으로
도움준 분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수여



구례경찰서(서장 강은석)는 치매와 지적장애를 앓고 집을 나간 60대 어르신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 최00(56)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구례경찰은 지난 5. 5.(화) 실종 신고를 접한 즉시 발생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과 함께 주변 CCTV를 통해 동선파악에 주력하였다. 17번 국도를 따라 순천시 황전면 방면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한 구례경찰은 순천서 등에 공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MOU를 체결한 택시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 정보시스템에 실종자의 인상착의를 문자로 전송하였다.

구례경찰은 5. 8.(금) 오후 5시 30분에

(남)은 문자를 받은 다음날인 휴무일에 자가용을 이용 개인용무를 보던 중 곡성군 죽곡면 18번 국도를 걸어가는 실종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강은석 구례경찰서장은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신고로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운 최00님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민·경 협력을 통한 시민경찰로서 소중한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례/강윤철 기자

담양군,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해야

농관원, 농식품 통신판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방법 및 확인요령 안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성답) 이하 '담양 농관원'

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

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알 권리 총족을 위하여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 상품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흥보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의무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

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담양/김용학 기자

육군공병학교, 장성호에서 환경정화 전개

장성군, 포병·공병학교, 해병대 전우회
쓰레기 수거 및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육군공병학교(이하 공병교)는 지역 명소 중 하나인 장성호(전남 장성군 북하면 일대)의 환경정화를 위해 장성군과 육군공병학교, 해병대전우회 등 민·관·군 협동으로 지난 최근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정화활동은 수변길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와 겨우내 떠내려온 각종 부유물들을 뜯어채어 수거하고 이를 모아 분리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공병교는 인력 접근이 어려운 다리 밑이나 수초, 낳았지역, 운집지역 등 방해물이 있어도 전진이 가능한 교량 가설단정 3척을 투입했으며, 장성군은 바지선 3척을 지원해 원활한 수상 적재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장성/박태지 기자

여수, "청년일자리카페에서 취업준비 하세요"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역 청년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청년일자리카페에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운영한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청년일자리카페가 꿈뜨락물(중앙시장 2층)에 문을 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운영을 보류해오다 이번 생활 속 거리두기 전개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카페는 청년 직업상담사의 취업 상담과 함께 채용시장 변화에 따른 비대면 면접 트렌드를 반영한 AI, VR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이 체계

적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컨벤션홀, 세미나룸, 스터디룸 등 커뮤니티활동 공간이 있으며, 사전에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컴퓨터, 복사기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 청년들의 소규모 동아리 활동이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해고 없는 도시’ 175개 사업장이 동참했다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협약식 진행

동참 의사 밝힌 175개 사업장 중 79개 사업장

전주지역 175개 사업장이 코로나19별 고용위기 상황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협약에 동참하기로 했다.

동참의사를 밝힌 전체 사업장 중 79곳은 실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유지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전북은행과 함께 500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 특별지원금을 조성키로 한 데 이어 이들 상생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안정 상담 및 지원을 맡을 해고 없는 도시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했다.

시는 13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과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 김승섭 부위원장, 안남우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과 김근영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장, 배선수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장, 신영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과장, 심병국 한국노총 전북본부 총무국장, 임재원 전북은행 부행장, 윤진식 한국공인노무사협회 전북지부장을 비롯한 고용 유관기관 및 지원기관 대표와 유현주 두예산골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이병관 대자인병원장,

임신호 전주병원장을 비롯한 전주지역 79개 사업장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지난달 21일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선언을 시작으로 고용유지 상생협약에 참여의사를 밝힌 175개 사업장 중 이날 1차 협약에 참여하지 못한 96개 사업장과의 협약식은 추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와 상생기업 대표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고통 분담과 위기 극복을 위해 단합의 근로자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키로 약속했다.

시는 상생기업에 대해 △고용유지 경영안전 자금 이차보전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도래 기업 이차보전 연장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분담분 지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보험료 및 연체료 지원 △고용유지 교육·훈련 참여기업에 교육·훈련수당 지원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유예 등을 지원해 고용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에 상생기업이 참여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시는 한국전통문화전당 5층에 해고 없는 도시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현장지원종합상황실’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갖기도 했다.

현장지원종합상황실은 기업의 고용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시와 근로복지공단, 노무사협회 등 고용유관기관의 직원 36명이 근무하게 되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고용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이곳에서 현장지원단의 총괄 운영을 맡고, 유관기관들은 전문 상담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전주중소기업인연합회는 찾아가는 현장컨설팅반을 운영한다.

현장지원단은 또 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유도하고 고용유지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동시에 기업의 애로사항점검 등 고용 관련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달 1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와 지원절차

가 복잡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46%를 차지함에 따라 기업 1:1 방문 서비스를 집중 운영키로 했다.

1:1 방문 서비스로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고용유지 지원정책에 대한 신청절차의 문제를 낮춰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현장지원종합상황실을 시범 운영해 상생협약업체 모집과 사업 안내, 각종 상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 뒤 문제점 등을 보완해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다음 달부터 각종 사업들을 신청받아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일자는 개인과 가정, 지역을 지키는 일종의 사회적 방파제다. 종체적 위기 속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강력한 사회적 연대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고 없는 도시 전주와 관련 기업지원 정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장지원종합상황실(063-288-9253~5)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이재만 기자

“역시 담양 대숲맑은 한우가 최고 이유가 있었네”

조사료 화식스팀기 지원사업 추진
대숲맑은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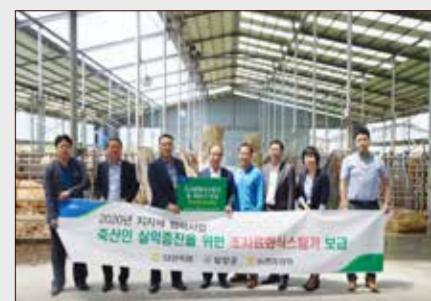
담양군이 담양 대숲맑은 한우의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진을 위해 축산농가에 조사료 화식스팀기를 공급했다.

군은 대숲맑은 한우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생육 전반에 관한 사육 매뉴얼을 만들어 동물복지 수준의 사육환경과 사양관리·사료 급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다 깨끗한 축산을 위해 사업비 1억6천5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축산 농가들이 농축사료와 조사료만을 급여하고 있어 소화율이 떨어지고 특히 송아지는 설사병 등이 빈번히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담양군은 담양축협과 함께 관내 한우 630여 농가 27,000여두 중 우량송아지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변식우 농가를 우선 선정, 조사료 화식 스팀기 30대를 공급했으며 대당 550만 원의 기계를 농가는 30%인 165만 원만 부담하도록 해 농가 부담을 덜었다.

조사료 화식스팀기는 과거 소죽을 쓰던 방식처럼 조사료를 4시간 이상 스팀을 활용해 고온으



로 찌는 방식으로, 조사료 내 유해균을 박멸하고 악취를 저감할 뿐만 아니라 조사료를 부드럽게 하고 사료 효율을 향상시켜 송아지 설사병 예방 및 한우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담양군 월산면의 이 모씨는 “조사료 화식스팀기를 이용한 조사료를 급이했더니 송아지의 설사병이 사라져 폐사율이 크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율이 높아져 소의 등급 및 증체율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며 사업의 확대를 희망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축산농가의 환경 개선과 더불어 담양 한우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담양축협과 함께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김용학 기자

여수시 세무행정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쾌거’

전남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상’,
상사업비 1억 3천만 원 수상

여수시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0년도(‘19년 실적)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여수시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등 1억 3천만 원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남도가 22개 시군의 1년간 지방세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등으로, 3개 분야 35개 항목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여수시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특히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한 세원 누락 방지, SNS를 활용한 세정홍보 및 세외수입 징수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마을세무사 출장상담, 맞춤형 지방세 컨설팅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시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업무 담당 공



방세 납부의식을 높이는 시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시는 또 마을세무사 출장상담, 맞춤형 지방세 컨설팅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시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업무 담당 공

무원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등 시민 공감 세정서비스 제공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상면 기자

장흥, 성년의 날 축하문 발송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성년의 날을 기념해 올해 스무 살을 맞은 관내 청소년(2001년생) 400여 명에게 ‘성년의 날 축하 서한문’을 발송했다.

성년의 날은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기념한다.

축하 서한문에는 장흥군의 희망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희망·응원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성인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을 응원하고자 서한문을 보냈다.

“앞으로도 청소년, 청년들이 행복한 장흥군을 만들기 위해 2020 청소년 행복 프로젝트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학교밖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등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종현 기자

구례군, 영양플러스사업 건강한 먹거리 제공

임산부·영유아 건강지킴이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앞장서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영양플러스사업 식품 배송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맞이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식품관리 상태를 점검하였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80%(2020년 4인 가족 기준 126,909원) 이하이며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에게 영양소보충에 도움이 되는 식품 패키지를 구성하여 제공한다.

김형진 구례군 보건의료원장은 “엄마와 아기의 건강은 구례군 미래의 건강이며 행복이다.”라며 식품 배송 위탁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식품을 검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군



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양플러스사업에 관한 상담 및 문의는 보건의료원 영양상담실(061-780-2029)로 하면 된다.

구례/강윤철 기자

자연을 가는 구례
Road to Nature, Gurye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www.guryelocalmarket.com

구매 문의 ☎ 061)780-8294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 위해 써 주세요”

‘평범한 이웃들’, 재난기본소득 나눔 캠페인에 동참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제가 잘사는 건 아니지만 그 돈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지난 7일 경기 수원시청을 찾아온 박모(73)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노숙인 등 코로나19 이후 더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100만 원을 선뜻 기부했다.

100만 원은 가족(4명)이 받은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각 40만 원)에 20만 원을 더해 마련했다고 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연금으로 생활한다는 박씨는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사람이 적어도 전체의 20%는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은 것 같다”며 “기부가

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도움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극복 수원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기부자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써 달라”며 재난기본소득을 흔쾌히 내놓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부도 있었다. 행궁동에 사는 김 모씨는 행궁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재난기본소득으로 받은 30만 원을 기부했고, 원천동에 사는 훌륭 어르신 김 모씨는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20만 원을 기부했다.

우만2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흥

00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걱정이 많았는데, 점포 임대인께서 ‘같이 힘든데 고통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다’며 임대료를 깎아주셨다”며 감면받은 임대료 전액(100만 원)을 수원시에 기탁했다.

수원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극복 수원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5월 13일 0시 기준 모금액은 4억 1350만 원(2152건)이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특별모금 계좌(농협 317-0003-8354-31, 예금주 : 경기공동모금회)에 입금하거나 각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모금함에 성금을 넣으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소득이 줄어들지 않은 시민은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재난기본소득으로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



주시길 바란다”며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유기서 기자

경주시 외동읍, 사랑의 집수리 사업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방문 상생복지단, 복지사각지대 해소 힘써

경북 경주시 외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별칭: 외동읍 상생복지단, 민간위원장 강기순)는 최근 ‘사랑의 집수리 사업’의 일환으로 개곡1리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세면장을 설치하고 씽크대를 교체(소요액 240만원)해 드렸다.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외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하나로 ‘함께하면 더 행복해요’라는 모토로 시작된 사업으로써, 이번에 대상자로 선정된 독거노인 세대는 추운 겨울이면 집 밖에서 세면을 하는 등 불편한 생활을 해왔으나 이번에 실내에 세면장을 설치하고 낡은 부엌 씽크대를 교체함으로써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대상자 이 모 할머니는 “너무나 고맙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기순 민간위원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



으로 이웃을 돌보며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 외동읍 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원 외동읍장은 “살기 좋은 외동읍 만들기에 힘써 주신 외동읍 상생복지단 강기순 위원장님과 위원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외동읍 상생복지단이 되기를 소망한다” 답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문화류씨 안산군자종친회, 이웃사랑 훈훈함 전해

경기 시흥시 능곡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병무)에서 지난 8일 문화류씨 안산·군자 종친회(회장 류호승)가 후원한 백미(10kg) 200포를 전달하는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문화류씨 안산·군자 종친회 류호승 회장 및 회원과 능곡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 및 능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시흥시 1%복지재단 사무국장, 능곡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 어버이날을 맞아 종친회의 100세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으며 능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석한 회원에

게 직접 제작한 마스크를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된 후원품은 능곡동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세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전달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종친회 류호승 회장은 “매년 이어온 후원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희망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다.

김병무 능곡동장은 “힘든 상황에 9년째 지속적으로 백미를 기부하며 나눔 문화를 실천해 주심에 감사하다”며 “소중하고 따뜻한 마음을 후원품과 함께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길대성 기자

안산시 공직자, 코로나19 극복 위한 성금 전달

관내 장애인시설에 250만원 전달

“따뜻한 지원의 손길 이어지길”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장애인시설에 공직자들이 모은 성금 25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 온유한센터와 안산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찾아 시설 규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공직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설일반 모아온 150만원과 100만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각각 전달했다.

해당 시설들은 만 8~35세 뇌병변

안산/길대성 기자

영천시자원봉사센터, ‘안녕한 한끼 드림’ 도시락 전달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걱정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심과 도움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무료급식소 중단으로 취약계층의 결식 우려가 커는데 도시락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영천/한반식 기자

경북 영천시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노인 및 결식 우려 가정에 도시락을 지원하는 ‘안녕한 한끼 드림’ 도시락 배달사업을 추진한다.

‘안녕한 한끼 드림’사업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5일간(주말 제외) 결식 우려 노인·가정에게 약 1,000개의 도시락을 지원한다.

지난 13일 영천역 광장에서 이루어진 ‘안녕한 한끼 드림’ 도시락 전달 행사에서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자원봉사자 격려차 직접 방문하여 도시락 전달에 참여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

여수시 미평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아름다운 기부

지덕준, 매년 100만 원 기부해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아껴 기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아름다운 기부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전남 여수시 미평동에는 2011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를 아껴 매년 100만원씩 기부해온 기부천사가 있다.

미평동행정복지센터(동장 정병연)에 따르면 지난 11일 미평동에



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계속 기부하고 싶다”면서 “기부를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했다.

장병연 미평동장은 “소중한 돈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웃음과 기쁨을 나누는 훈훈한 미평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여수/김상면 기자

80대 할머니, 코로나19 극복 성금 200만원 기탁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어가는 분위기로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거주하는 한 80대 할머니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기탁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전영숙 할머니(82)는 200만 원을 가지고 허로 전곡읍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와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사용해 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기탁 했다.

전영숙 할머니는 “연천군으로 이사를 옮겨온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전 거주지에서도 나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금을 기탁 했으며 그 때보다 액수는 작지만 유용하게 써 달리”며 성금을 전달했다.

채택병 전곡읍장은 지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과 온정어린 손길의 도움을 주신 전영숙 할머니께 감사를 드리며 기탁받은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



금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하고 있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100가구에 라면을 전달하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천/김승곤 기자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 기부금 500만원 전달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주민자치협의회(회장 지용원)에서 12일 ‘팬찮아 it's ok 캠페인’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달라며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용원 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주민자치위원회들의 뜻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월부터 문화강좌를 전면 휴강했다. 또한 버스승강장에 손세정제를 설치하고 일부 동에서는 면 마스크를 제작해 관내 초등학교 및 시설에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팬չ아 it's ok 캠페인’ 참여해 기부된 500만원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은 청소년 및 영세상공·문예인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 취약 계층에 쓰일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서로로서 주변의 어려움을 살펴 후원에 나서줘 큰 힘이 된다”며 “현재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다종이용시설의 방역과 지역경제 침체 극복 등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양/김성태 기자

예천군, 교육청과 함께 농·축산물 꾸러미 제공



경북 예천군이 최근 예천교육지원청과 함께 1억여 원(군비 50%, 교육청 50%)의 재원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 3,700여 명 가정에 농·축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꾸러미 공급은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개학이 늦어짐에 따라 가정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며, 계약 재배 되어있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촉진시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됐다.

농산물 꾸러미는 1인당 3만 원 상당으로 예천군 친환경 백미와 칠분도, 지역 및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과일, 한돈 등 성장기에 좋은 농산물로 구성했다.

물품 발송은 14일부터 5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배달되며,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당일포장 및 당일배송

을 원칙으로 하는 일명 ‘로켓배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온라인 개학 등 학교 급식 중단에 따라 학생들의 균형 있는 식생활 유지와 학부모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정성우 기자

광명시, 찾아가는 마음건강 희망꾸러미 배달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프로그램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류호승)가 후원한 백미(10kg) 200포를 전달하는 기탁식을 가졌다.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 등록회원에게 텁발세트(չ박소화분) 200개를 전달했으며, 광명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텁발세트, 손소독제, 마음건강지침 안내 카드로 구성된 희망꾸러미 140개를 전달했다.

이번 희망꾸러미 배달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마

안산평생학습관, 코로나19 응원영상제작

정규과정 강사들과 함께 이기자! 코로나19 극복 응원 영상
국가재난을 극복 염원과 힘내자는 응원 메시지를 담아



경기 안산시 평생학습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조기극복의 염원을 담아 '정규과정 강사들과 함께하는 이기자! 코로나19' 극복 응원 영상을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평생학습관은 매년 시작되는 봄과 함께 정규과정을 개강해왔다. 올해는 상·하반기 16주 과정으로 개편해 29개 강좌가 개강을 앞두고 있었으

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상반기 전 강좌가 폐강됐다.

이렇듯 예년과 같은 일상생활로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격려와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강사와 수강생 모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정규과정 강사들이 직접 참여, 극복 응원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

특히 영상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최라영 평생학습관장과 강

사들이 '코로나'로 삼행시를 지어 국가재난을 극복하자는 염원과 함께 힘내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최라영 관장은 "코로나19가 종식돼 하루빨리 선생님들과 학습자들로 북적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하고, 아무것도 아니던 평범한 일상이 더욱 더 소중해지는 시기인 것 같다"며 "힘든 시기이지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윤화섭 시장은 "보고 싶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외출도 조심스러워 답답함이 크실 것 같다"며 "코로나19 종식으로 배움의 열정이 큰 '평생학습도시 안산'에서 하루 빨리 뜨거운 배움의 현장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평생학습관의 정규과정은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평생교육 6진 분류체계를 토대로 분야별 균형 잡힌 강좌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인근기관과 중복되는 강좌는 지양하고 평생학습관만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강좌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안산/길대성 기자

영주시, '2020년 숲가꾸기 사업' 시행

경북 영주시는 총 사업비 12억 7,700만 원을 투입해 '2020년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숲 가꾸기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과 조림지 사후 관리를 위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포함된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은 1차 설계 마무리 후 부석면, 안정면 일원에 192ha 면적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중 2차 설계를 마무리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8부터 2020년까지 춘지지 241ha에 대해 조림목이 새로운 환경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생육에 방해되는 초본류나 관목류를 제거하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병행해 2차에 걸쳐 추진된다.

영주시는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해당 산림 내 수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고사목, 잔가지, 형질불량목, 피암목, 경합목 등을 제거하고 미래목을 선정해 중점 관리함으로써 생태적·환경적으로 건강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적으로도 가치 있는 산림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영주시 산림녹지과 금두섭 팀장은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재활용,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주/정승조 기자

코로나19에도 피어난 시흥시 도자예술

소전미술관, 재개관 기념 특별전시회 열어
도자기 명품 불교미술, 조각작품 상설 전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및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면서 도내 문화시설들이 하나 둘 가지개를 폐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비밀의 미술관으로 닫혀져 있던 경기 시흥시 소전미술관이 특별전시회를 시작으로 최근 개관했다.

소전미술관은 1996년 시흥시 대야동에 이전해 한국적 미감을 다양하게 표현한 도자기 명품과 불교미술, 조각작품 등을 상설 전시하며 시흥시 문화예술 공예품 전시 및 관람의 요지로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단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민 개방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으나, 올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됐다.

다. 소전미술관의 재개관 기념 특별전시 '도예, 도자공예 도자예술'은 실용예술에서 순수예술로 확장하는 도예의 시점들을 초대작가인 이인숙, 정길영, 김영아의 작품 30여점을 통하여 보여준다.

이인숙 작가의 <인공립> 설치작품은 자연의 형태를 감각적이고 편안한 도자의 형태로 구성해 관객들에게 다가가며, 정길영 작가의 <수상한 세라믹> 작품들은 캔버스 대신 백자도자관 위에 흙이나 청화 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구워내는 도자회화를 선보인다.

특별전시는 내달 20일까지이며,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와 시흥시의 2020년 지역문화 유통 플랫폼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청화백자 전시연계 체험 프로그램도 6월 6일부터 3주간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흥/길대성 기자

성남시 신흥동 성남시립박물관 건립 '청신호'



성남시립박물관의 주제를 성남의 도시역사에 집중한 점, 박물관 건립 TF팀을 신설한 점, 박물관 사업을 시민참여형으로 기획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사전평가를 신청한 13곳 자체 가운데 적정 평가를 받은 곳은 성남시 등 3곳뿐이다.

성남시는 자체가 박물관을 건립 하려면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 사전 평가 통과와 함께 건립비 300억 원 중 2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종양)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건축·전시·설립설계용역을 거쳐 성남시립박물관 건립 공사를 본격화한다.

건립 장소는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8만 4271㎡)에 조성하는 근린공원(4만 6615㎡·2021년 말) 내다.

공원 사업자가 교육동(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915㎡)을 2021년 말 먼저 짓고, 성남시가 전시동(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600㎡)을 2024년 말 완공한다.

더연합타임즈 서울포커스

www.theuniontimes.co.kr

회장 송원기	발행·편집인 추교진	인쇄인 현재오
대표전화 : 1899-2026	팩스 : 02-558-2289	E-mail : mbc0300@gmail.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42		
2020년 2월 14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34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2026 / 구독료 : 월 15,000원 -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여수시, 영어·중국어 원어민 화상학습 운영

25일부터 4개월간 무료로 진행
14일부터 선착순 400명 모집



전자책 도서관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2년간 여수시 원어민 화상학습을 내실있게 운영할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공개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질 높은 문화생활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시 원어민 화상학습은 영어를 제1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원어민 강사로 구성된다는 점이 타 자자체와 다른 강점이다"고 밝히며 "수강생 모집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시 원어민

보성군, 문화공감 공모 사업 3개 부문 선정

문화예관 기획 제작 프로그램에 선정
총 3개 부문 227,340천 원 지원받아

전남 성남문화예술회관은 '2020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에서 국공립예술단체,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을 유치하고, 문예회관 기획 제작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총 3개 부문에서 2억 2,734,000원을 지원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보성군은 총 5개의 디자로운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질 높은 문화생활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공연 작품은 고(故) 김광석의 주옥 같은 명곡들을 노래하는 ▲김광석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7월 16일, 7월 17일)과 전수경과 이지훈 등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과 실력파 재즈밴드가 함께 할 ▲뮤지컬, 재즈에 빠지다(8월 20일).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오페라를 재

구성한 ▲헬로!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8월 28일), 우리 전통의 소싸움 놀이를 탈로 표현한 창작 연희극 ▲찾아가는 소싸움판 우왕전(11월 26일), 문예회관이 기획하고 보성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한 창작 음악극 ▲보성이네 생일작전 2탄(11월 5일, 6일, 7일)이다.

'2020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 및 문예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여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문예회관 생태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방역과 공연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문예회관 활동에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정필 기자

**배움이 있는 교실, 변화하는 학교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 복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교육장 이예걸



글로벌 경영의 속도를 높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선진적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KT&G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TOP4를 향해 달려갑니다



상상을 나누다 **KT&G**